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2~7/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가시를 거두세요 : 소나무 스님의 숭늉처럼 속 편한 이야기	광우	쌤앤파커스	6	담마빠다(법구경)깨달음의노래	이중표	불광출판사
2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청우당	7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	향봉	불광출판사
3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자우	사유수	8	마음 닦는 법	김재웅	용화
4	한글 아함경	고익진	담마아카데미	9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 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	불교신문사
5	젠만다라 컬러링북 (명상과 집중에 도움이 되는 100가지 색칠하기)	데상 앤 뜰로라	담앤북스	10	법구경 이야기(1) 법구경주석서	무념, 응진	옛길

책세상

무아, 대자유를 위한 가르침



무아, 그런 나는 없다
홍창서 지음 / 김영사 펴냄
1만4800원

서양철학과 불교로 '나'를 증명
데카르트 명제 허점들 지적하며
무아가 왜 자유를 향하는지 살펴



ⓒ이우일 사진제공=김영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살면서 이런 고민이나 사유는 한번쯤은 해보지 않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스님들에게 서양철학적 관점에서 불교를 강의하는 홍창성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이 질문은 지적으로 살짝 사기를 쳐 놓아서 멋지게 보일 뿐"이라고. 그러면서 "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 당황스럽다면, 그것은 오히려 독자가 스스로 건강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토닥인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자체가 사이비 철학임을 꼬집는 홍창성 교수가 내놓은 〈무아, 그런 나는 없다〉(이하 〈무아〉)는 '나' 라는 존재에 대한 탐구이자 붓다가 설하신 '무아(無我)' 에 대한 증명들의 여정을 담아냈다.

저자는 '나는 누구인가(Who am I)' 라는 질문과 '나는 무엇인가(What am I)' 라는 질문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누구와 무엇의 의미를 적당히 섞어서 혼동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질문"이라고 지적하고 '누구' 가 아닌 '무엇' 임을 묻는 질문으로 수정돼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자아와 혼 그리고 인격체를 비교 및 대조하면서 자아가 무엇인가를 더 선명히 이해시킨.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아 또는 영혼이 개념적으로 모순이라고 밝히며 자아나 영혼이 존재할 수 없음을 증명한다.

'나는 무엇인가' 라는 수정된 질문에 끝에는 붓다의 '무아론' 이 있다. 저자는 '나의 존재' 에 관한 가장 혁신적인 설명인 불교의 '무아론' 을 심리철학, 언어철학, 형이상학 등 서양현대철학의 통찰을 이용하여 여러 각도에서 논증한다.

특히 5장에서는 '무아론' 에 대한 서양철학의 가장 강력한 도전인 데카르트의 철학을 고려하고 논의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의 명제에 대해 저자는 그의 견해가 오히려 무아론에 의해 반박된다고 논증한다. 그리고는 '부분이 모인 전체는 실재한다' 는 우리 일상의 상식이 무아론을 반박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현대철학의 관점에서 불교의 본질을 명쾌하게 설명해 호평을 받았던 저자는, 어쩌면 정반대일 것 같은 서양철학의 논증과 접근법을 통해 불교의 '무아' 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막연히 '나' 라고 믿고 있던 갖가지 나의 정체를 살펴보고 '그런 나는 없다' 를 증명하는 반면, 법적 · 도덕적 책임이 있는 '인격체로서의 존재' 마저 부정하지는 않는다. 일시적 느낌이나 상태, 어설픈 논리의 비약으로 밑도 끝도 없이 그저 '나는 없다' 말하며 '무아' 를 무책임한 핑계거리나 초월적 개념으로 삼는 것도 경계한다.

서양철학의 논법으로 서양철학의 허점을 짚어내기도 하고, '참나' 와 '무아' 가 양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불교의 애매한 상황도 진단하면서, 자칫 허무주의로 오해받기도 하는 '나 없음' 의 의미와 가치를 입체적으로 정리했다.

결국, 저자가 밝히는 '무아' 는 '진정한 자아 또는 참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붓다의 가르침이다. 그렇기에 저자가 서문에서 밝힌 "우리는 모두 공(空)한 인격체"라는 명제는 곱씹어 생각해볼 만 하다.

"모든 죽어가는 존재를 위하여"



리빙 이즈 다잉
종사르 잠양 켄체 지음
수연 옮김
팡세 펴냄 / 1만 8000원

티베트 불교의 큰 스승 종사르 잠양 켄체 린포체의 저서 '리빙 이즈 다잉' 이 한국독자들을 위해 나왔다. 이 책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죽음의 필연성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다. 저자는 가까운 친구들이 자신에게 물어온 죽음에 관한 백여 개의 훌륭한 질문에 대한 답본으로 이 책을 구성했다.

왜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할까? 무엇보다 죽음은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죽음에서 돌아와서 죽음이 무엇이라 말해준 이가 아무도 없다. 설령 누군가 그렇게 했더라도 그들을 믿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모른다' 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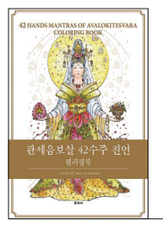
그렇다면 필연적인 죽음을 대비하는 현명한 길이 무엇일까?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최고의 준비는 삶을 충만하게 사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가보고 싶었던 모든 곳을 여행하며 인생을 즐겁게 살도록 노력하고, 마치 마지막이 될 것처럼 주변의 사물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관계를 맺고 스티로폼 컵이 아닌 멋진 찻잔에 맛있는 차를 즐기거나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며 언제나 원해왔던 것을 지금 당장 하라, 어쩌면 다음 기회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저자는 우리를 일깨운다.

▲저자 **종사르 잠양 켄체**는?

1961년 부탄에서 태어난 켄체 린포체는 7세 되던 해에 사캬 티진 존자가 켄체 법맥의 세 번째 환생자로 확인했다. 켄체 린포체는 12세까지 시킴 왕국의 왕궁에서 교육 받았다. 젊은 시절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보존하는 데 관심이 많아 불학원과 강원 설립, 수행자들 후원, 불서 출판과 역경 등을 위한 기관 설립과 활동을 주도해 왔다. 2001년에는 불교 공부, 수행, 학술적 연구를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국제 비영리 단체인 '켄체파운데이션'을 설립했다. 영화감독이기도 하다. 작품으로는 〈바라:축복〉 〈헤마헤마〉 〈송곳니와 수염이 난 여인을 찾아서〉 등이 있다. 저서로는 〈우리 모두는 부처다〉 〈궁극의 행복〉 〈행복을 위한 발걸음〉 등이 있다.

임은호 기자

자신만의 관음보살을 완성하는 시간



관세음보살 42수주 진언 컬러링북
조미애 그림
운주사 펴냄 / 1만4000원

예로부터 사불(寫佛)은 사경(寫經)과 더불어 수행과 신행의 한 방편으로 널리 활용돼 왔다. 이 책은 〈관세음보살 42수주 진언〉을 현대인에게 익숙한,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 재해석해 그린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흔히 천수천안관세음보살로 불린다. 관세음보살은 천개의 눈으로 뭇 중생들을 살피고, 천 개의 손으로 중생들을 고통과 고난에서 구제해 준다. 물론 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이다. 그런 만큼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음보살이 가장 인기 있고 대중적이다. 그래서 어느 절에 가더라도 관세음보살을 만날 수 있다. 그만큼 중생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는 반증이다.

관세음보살 42수주는 42개의 손과 지물, 그리고 그에 따른 진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각의 모습과 진언에는 중생들의 다양한 서원과 바람이 담겨 있다. 이런 배경이 있으니 〈관세음보살 42수주 진언〉이 예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받아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저자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미술 공부를 한 후, 미국과 유럽, 한국 등에서 다양한 작품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본래의 42수주 진언은 간단한 손모양과 지물로 돼 있는 데 반해 그의 작품은 관세음보살의 온전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그려내고 있다.

본래 42개인 '수주' 를 비슷한 내용끼리 합해 22개의 그림으로 표현했으며 영어권 사람들을 위해 영어를 함께 수록했다. 뒷부분에는 채색까지 마무리한 그림들을 수록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그림들은 사족에 불과할 뿐이니 마음 가는 대로 자신만의 관세음보살을 완성시켜 나가면 될 것이다. 오직 관세음보살을 향한 지극한 마음과 정성이 필요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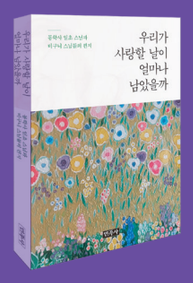
임은호 기자

출가, 입산,
부처의 삶을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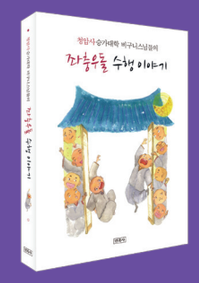
신록같은
비구니 스님들의
인생관, 수행관, 세계관!!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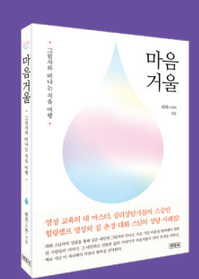
우리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동학사 일초 스님과 비구니스님들의 편지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강원 동학사!
동학사 화엄학림장 일초 스님과
학인들의 편지. 첫 줄을 읽는 순간,
마음은 초록색 힐링!
일초 지음 | 292쪽 | 14,500원



좌충우돌 수행 이야기
청암사 승가대학 비구니스님들의 일상생활상
KBS 2TV 다큐 3일의 신선한 감동!
비구니 강원 청암사의 365일!
청암사 승가대학 편집실 | 360쪽 | 15,000원



우리 모두는 인연입니다
수녀에서 비구니스님으로
독특한 이력의 일아 스님,
고등학교 교사에서 종교인으로!
태국, 미얀마, 미국에서 보낸 종교인의 삶!
체험으로 빚은 수행철학, 깨달음의 책
일아 지음 | 356쪽 | 12,000원



마음 거울
그림자와 떠나는 치유 여행
마음수련 프로그램 동사섭의 개척자이자
영성 교육의 대 마스터, 상담가들의 스승인
대화 스님의 상담 사례집!
바로 이 자리에서 치유의 행복을 선사하는 책
대화 지음 | 328쪽 | 15,800원



종이 칼
법념 스님의 산문집
팔순을 바라보는 노비구니스님이
컴퓨터 자판을 친다. 불현듯 연말이면
죽음이라는 단어에 민감해진다.
법념 지음 | 252쪽 | 13,800원



살다보면 살아진다
대중에게 전하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
나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
잘 견디고 있다고 응원하는 정운 스님
일상 생활 속에서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책
정운 지음 | 252쪽 | 13,800원